

대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과 모델

-한양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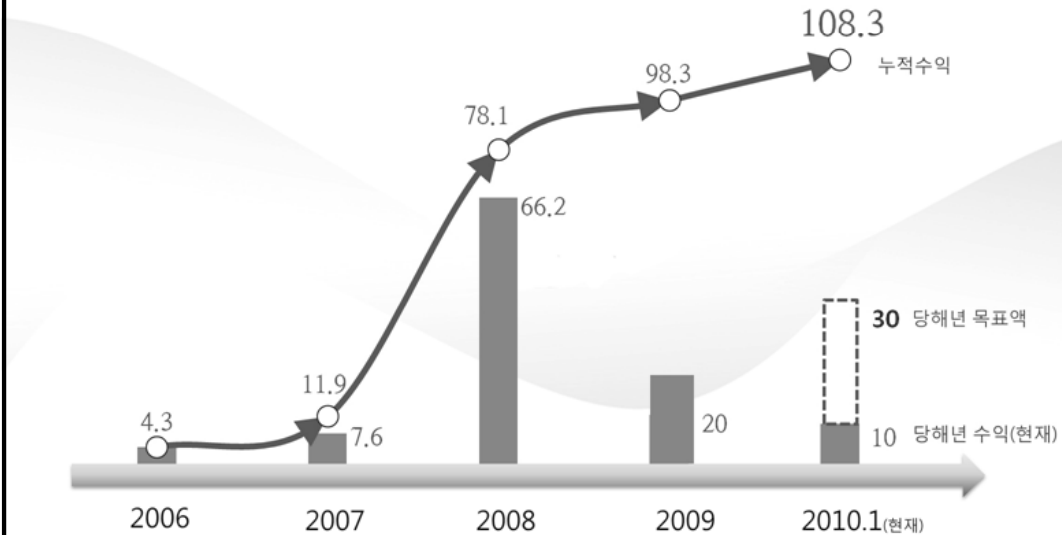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 한양대학교 기술이전 성과

한양대학교 기술이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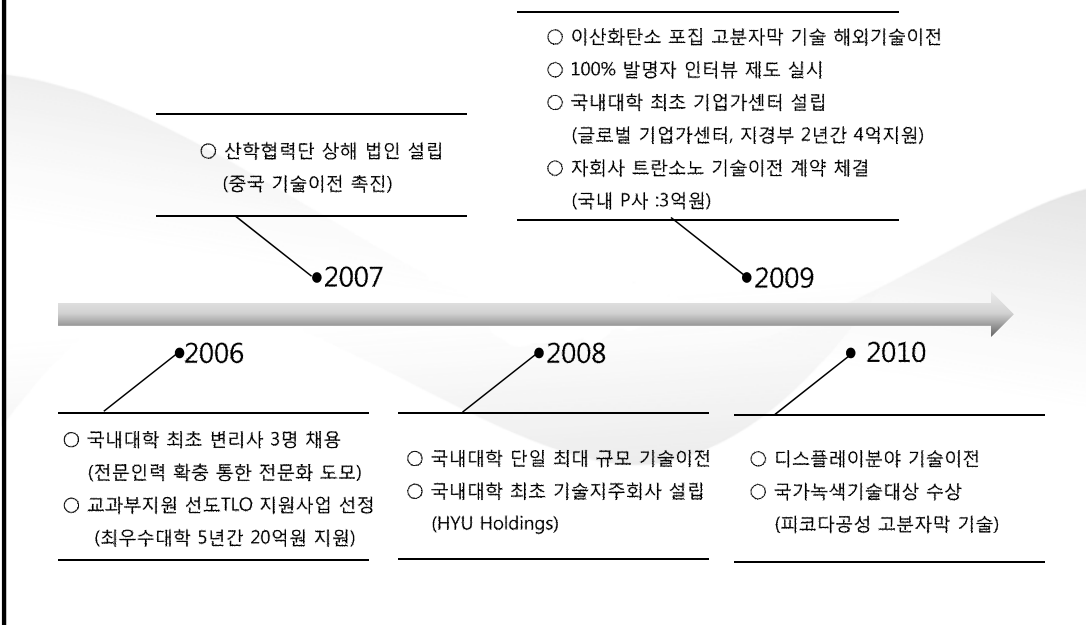
3

“CK사업 이후 누적 기술이전수익 100억원 돌파”



한양대학교 주요성과

4



대표적 기술이전 성과

5



박재근 교수

국내 대학 단일 최대 규모 기술이전

이영무 교수

이산화탄소 포집 고분자막 기술 해외이전



김재훈 교수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전

선양국 교수

2차전지 분야 기술이전



발명자 인터뷰

6

대학의 모든 신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전문가가 기술의 Value-up을 도모



515건 발명신고 (2009년)



교수명	기술내용	(기대) 성과
이영무 교수	다공성 고분자막 기술	기술이전계약 체결
정성일 박사	잡음 제거 기술	기술지주회사 출자
선양국 교수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소재	기술이전계약 체결
김재훈 교수	디스플레이 관련기술	기술이전계약 체결
최승원 교수	SDR 관련 표준기술	표준기술채택, 기술이전 추진중
박재근 교수	CMP 슬러리 기술	기술이전 추진중
김용수 교수	방사능 폐기물 처리기술	기술지주회사 출자 준비중
이재성 교수	전자파 흡수 기술	기술지주회사 출자 준비중

"S,A" {

}

"수십억원의 기술이전/사업화 SEED 기술 발굴"

"B,C" {

발명자인터뷰를 통한 권리강화 ▶ 특허등록율 증대

"D" {

58건 미승계 (11%) "2억4천만원 예산절감"

우수기술군 포트폴리오 구성

중장기 안정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모델 구축

태양전지(현재 시범사업실시)



2차전지



전략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유도 및 특허발굴

LED,OLED



RFID/U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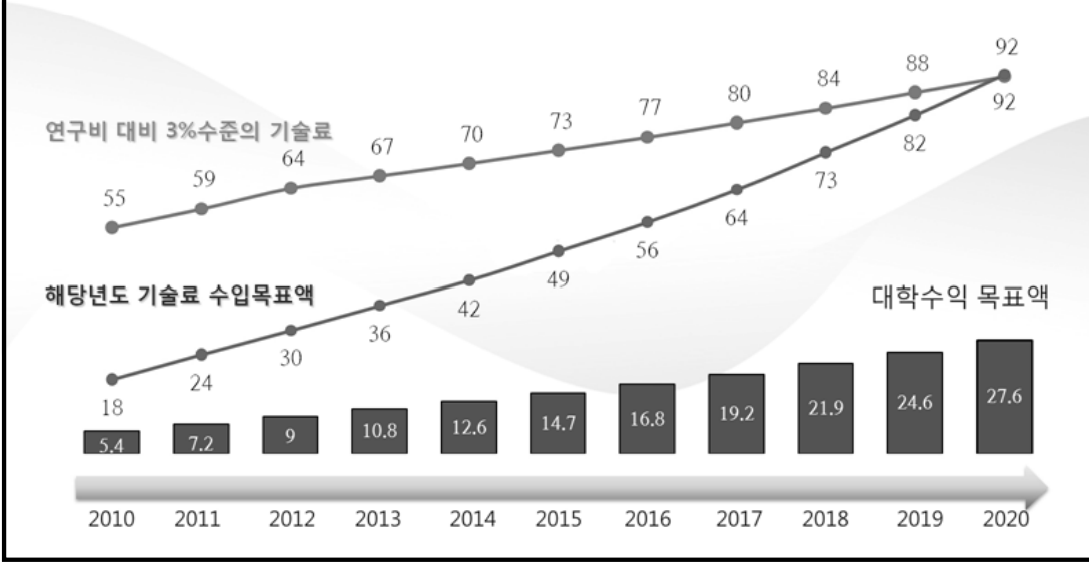
의료/서비스용
로봇



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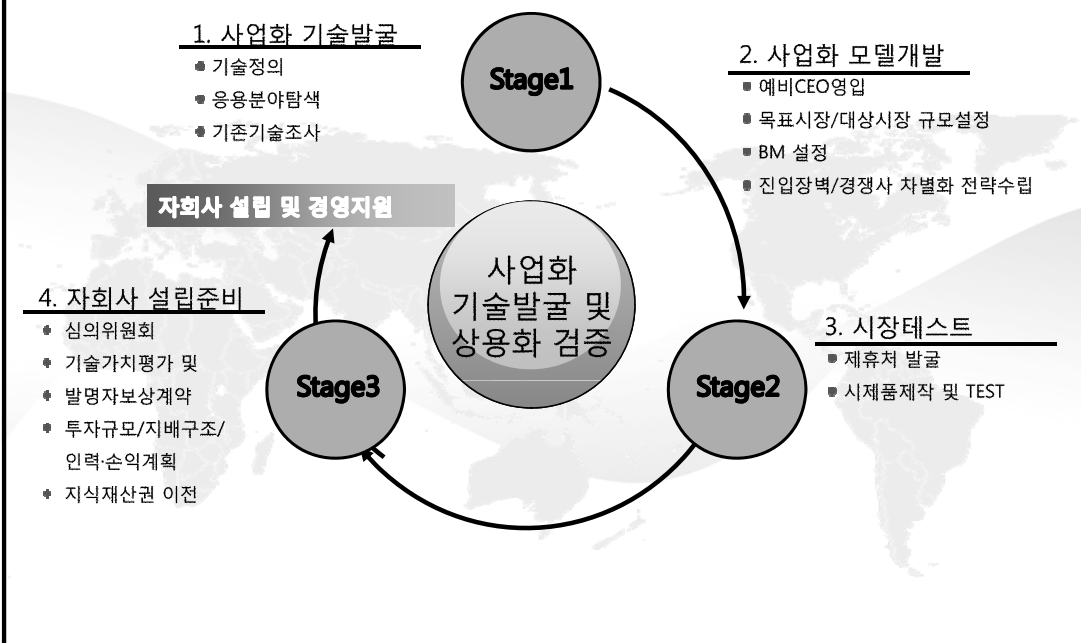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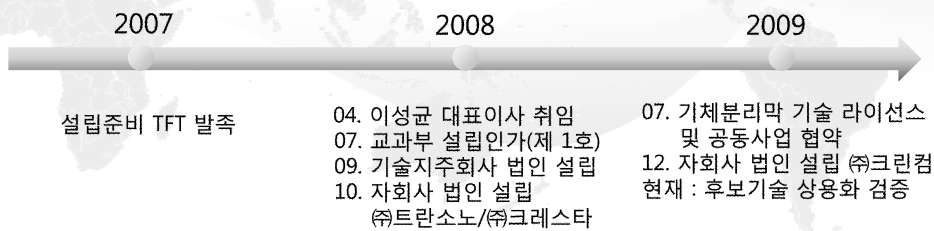


“2020년까지 연구비대비 3% 기술이전 수익 달성”



2. 한양대학교 사업화 성과

- 회사명 :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주) / HYU Holdings Co., Ltd.
- 대표자 : 이성균
- 설립일 : 2008년 9월 5일 (국내 최초 대학기술지주회사)
- 자본금 : 35.91억원(현금 15억원+현물 20.91억원) (5억 추가 출자 계획중)
- 주요주주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 출자회사 : (주)트란소노/(주)크레스타/(주)크린컴/(주)Omega Quint Asia



자회사 - 트란소노

13

- 회사명 : (주)트란소노 / TranSono Inc.
- 대표자 : 이정규
- 설립일 : 2008년 10월 8일 (국내 최초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 자본금 : 16.2억원
- 주요주주 :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80.25% / 한국산업은행 19.75%
- 주요사업 : 다양한 음성 커뮤니케이션 상의 통화품질을 개선하는 원천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ElectoVox® : 다양한 잡음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음질개선기술”

Finance	연구개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본금 : 13억원 ● 산업은행 투자유치 : 8억원 ● KOTRA 해외투자유치설명회 : 해외 IR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BD : 6억원 ● 현대기아차-마이크로소프트 주요협동연구 : 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휴대폰 Maker 포팅 (A사와 기술이전계약 체결) ● 홈네트워크 관련 솔루션 납품 ● 버스터미널 ElectoVox-ASR설치

자회사 - 크린컴

14

- 회사명 : (주)크린컴 / Clean-Comm Co., Ltd.
- 대표자 : 박명종
- 설립일 : 2009년 12월 1일
- 자본금 : 3억원 (2010. 2월 10억원대의 투자 유치 예정)
- 주요주주 :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33.30% / 박명종대표이사 외 66.70%
- 주요사업 : Mobile Device에 적용 가능한 Solution을 Chip기반으로 개발하여 공급

“잡음 제거용 프로세서 : 주변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 하여 송신자의 음성 신호를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서”



자회사 – Omega Quin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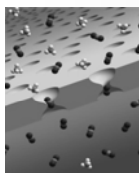
15

- 회사명(가칭) : (주)Omega Quant Asia
- 주발명자 : 박용순 교수(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 설립형태 : 美, 獨 투자유치를 통한 제휴 설립 / 글로벌화 지향
- 주요사업 : 연구수요의 상용화 및 지방산을 측정 분석하여 Recommendation Report 제공



예비 후보 기술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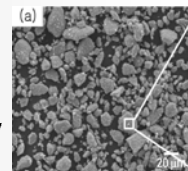


다공성 고분자막기술

low-k물질, 2차전지 분리막 등의 용도 (국내 대기업과 기술협력중)

금속나노분말 제조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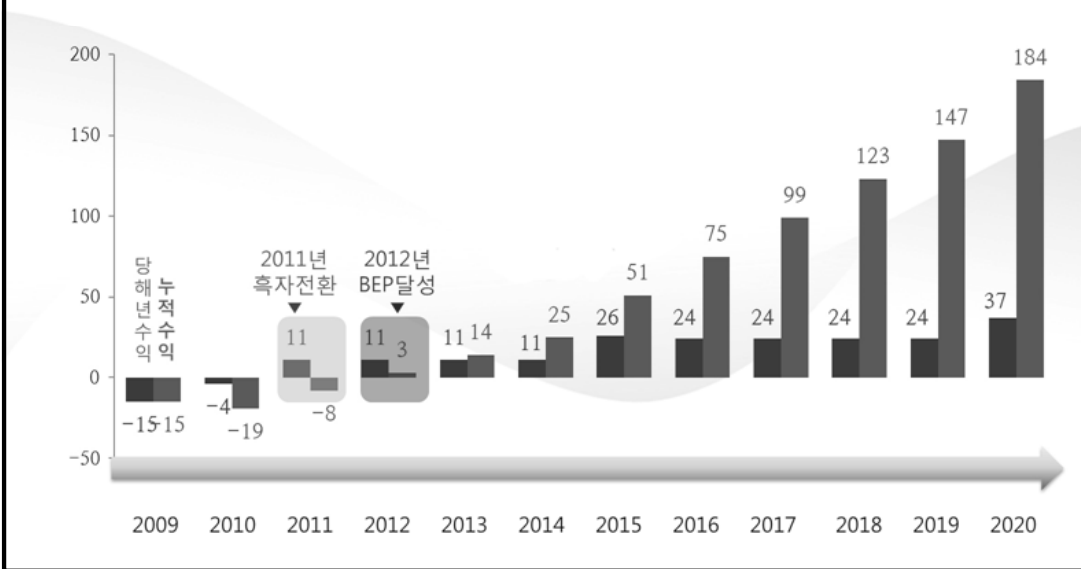
전자파흡수체, 자성유체, 자기기억용재료, 내마모부품, 고강도소재, 약물전달시스템, 센서재료 등으로 응용 (해외기업과 기술협력중)



방사능 폐기물 제염사업

물리/화학적으로 오염된 방사성 핵종을 선택적으로 기화/제거시키는 기술(NET 인증)

“2011년 흑자전환, 2012년 BEP 달성”



- 설립목적 :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예비 CEO로서의 실전적 지식을 전달
- 센터장 : 류창완
- 설립일 : 2009년 7월 8일
- 동문기업인이 2014년까지 50억원의 운영기금 마련 (2009년 현재 10억원의 기금 조성)

<p>기업가 포럼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우수기술의 홍보의 장 (기술이전,사업화) - 420명 코스닥 CEO 및 임원들간의 교류 	<p>기업가 캠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기간 합숙을 통한 성공노하우 습득 - 사업 선후배간 네트워크 강화 도모
<p>기업가 역량 개발을 위한 강좌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리더(선배기업인,전문가) 참여 - 기업가정신, 벤처실전전략, 벤처금융 M&A 	<p>멘토쉽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풀 : 코스닥 상장기업 CEO 100명 - 학기별 2~3회 현장 방문



“학생 창업 활성화를 통한 수입확대 및 고용창출”



제1회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개최
: 110개의 팀참가



총 5개의 아이템에 대해 수상
: 사업공간제공, 투자유치, 사업컨설팅제공
: 기업가포럼에서 시상(기업인 투자 유치)

대상수상팀 현재 창업보육중

T오픈 플랫폼(인터넷통합댓글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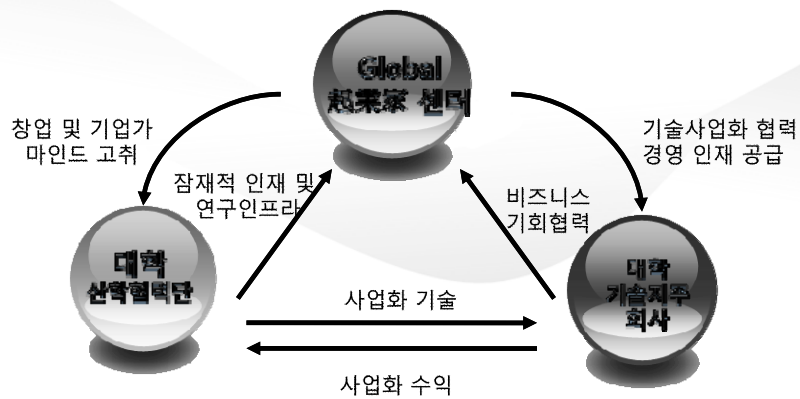
현재 주요 언론사와 제휴중 (매출발생)

T오픈플랫폼을 채택하고 있는 언론사 및 업체들

국내 종합일간지순위(랭키닷컴2009.08 기준)

1위	조선일보(전체9위)	chosun.com	2009년 11월 오픈(town.chosun.com)
2위	중앙일보(전체9위)	joongAng.co.kr	오픈 협의 중
3위	한국일보(전체11위)	hankook.com	2009년 7월 오픈(hankook.com)
4위	경향신문(전체16위)	kyunghyang.com	2009년 9월 오픈(hwan.khan.co.kr)
5위	동아일보(전체24위)	dongA.com	2009년 12월 오픈예정
6위	국민일보(전체27위)	www.kukminnews.com	2009년 8월 오픈(hwan.kukminnews.com)
7위	서울신문(전체31위)	seoulnews.com	2009년 10월 오픈(hwan.seoul.co.kr)
8위	한겨레(전체37위)	hankyore.com	2009년 9월 한겨레 세제21 오픈예정
9위	세계일보(전체41위)	segye.com	2009년 10월 오픈(hwan.segye.com)
10위	문화일보(전체56위)	munhwa.com	2009년 12월 오픈예정
11위	아시아투데이(전체319위)	asiatoday.com	2009년 8월 오픈(hwan.asiatoday.co.kr)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3. 2단계 사업 제안

1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

22

“기술이전 기반 및 시스템 구축에 큰 성과 ”

- 기술이전 조직 참여인원 : 2009.1월 현재 CK 참여대학 평균 7.3명
- 인력의 전문화 구축 : 변리사 9명, 기술거래사 22명, 기업.기술가치평가사 16명
- 전문화된 조직화 (특허관리에서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총괄가능한 팀으로 변화)
- 기술이전 주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성 (특허사무소, 기술평가·거래기관, 은행 등)
- 대학차원의 기술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
-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정비가 완료 (규정, 특허시스템, 보상, 평가 등)
-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관련 자격 취득 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

1. 지주회사제도 도입 등 기술이전/사업화로의 활동범위 확장
2. NPE, 창의자본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전 등장
3. 원천기술, 표준기술, 녹색기술 등의 관리 중요성 대두
4. 특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관심 증가
5. 글로벌협력, Open innovation 도입등 새로운 환경 변화
6. 고용창출,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의 R&D의 선순환 구조 확립 강조

